

회복(누가복음6:8-10)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변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치유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손은 마르지 않았지만 혹, 다른 곳이 메말라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며 영육 간에 모든 곳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 손 마른 사람 => 그리스도 만남으로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불가능 상태

* 오른 손 마른 사람은 신경이 죽어 피가 흐르지 않아 오무라진 손, 메마른 손, 의학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유대인 역사서에 보면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은 본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석공 일을 하면서 불펜하나 들어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 생계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여 손만 보면 한숨만 쉬고, 부끄러워 늘 손을 품에 넣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 받은 자라고 외면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위축당하면서 살았습니다.

(2) 가능 상태

* 혹 부끄러운 과거, 말하기 힘든 가정사, 숨기고 싶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마른 손”을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소서! 기도하시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예배는 기적의 날입니다. “불가능한 나의 마른손을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소서!” 라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회복시켜주소서!

① 눅6:8. (서라! -> 서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회당 모퉁이에 죄인처럼 앉아 예배하는 손 마른사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부르시며 한 가운데로 서라 하십니다. 남에게 감추고 싶은 자신 약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 가운데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의 모습을 포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장, 위장한 것 것들을 뜯어내고 주님께 나아갈 그때야 비로소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② 눅6:10. (내밀라! -> 그리하매), 예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예수께서 감추고 싶은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실수 했으면 실수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병은 자랑해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내어놓고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 창3:7-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에 벗었음을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동산나무 사이에 두 번이나 숨는 것을 봅니다. 범죄 한 아담이 사는 길은 잘 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거짓이 없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2. 세 가지 회복

* 메말라 있는 영적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배회복(삼상7:9, 창12:1-9)

① 삼상7:9.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이 쳐들어 왔는데도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며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진짜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예배, 진짜기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엘이 믿지 못했다면 군인을 모집하여 싸우던지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② 창12:1-9.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2) 기도회복(수14:12, 수21:45, 렘33:2-3)

① 수14:12. 갈렙은 아낙산지 앞에서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② 수21: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③ 렘33:2-3.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약잡고 진짜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토요학교 때 주신 언약의 말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라!(예4:14)

(3) 전도회복(예1:1-2, 행19:9-10)

① 예1:1-2.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나의 가족이여, 형제, 자매여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② 행19:9-10, 금년 원단에서 주신 말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한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 금주의 미션

- (1) 회복 하거나
- (2) 회복시켜 주기
- (3) 전도지 전달하기(3장 이상)